새누리 낙천 친이계 김무성·진수희 보류 불구 집단탈당 불씨 여전

‘非박근혜 보수신당’ 뜨나

여야 낙천 인사 연대 가능성도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친이(친이명박)계의 ‘집단 탈당’이 김무성·진수희 의원의 이탈로 일단 보류됐지만 집단행동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애초 친이계 3선인 최병국(울산 남구갑) 의원이 1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4선의 김무성(부산 남을) 의원과 재선의 진수희(서울 성동갑) 의원이 이날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친이계 10여명의 동반 탈당 가능성이 점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파 분열의 핵이 돼서는 안 되므로 백의종군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고, 친이계 핵심 진수희 의원도 탈당 선언을 보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친이계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며 “전술상 1보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천에서 탈락한 수도권 중심의 친이계 의원들은 우선 ‘불공정 공천’에 대한 사례를 수집, 공직후보자추천위의 결정을 번복하는데 주력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천 친이계 내에서는 제 3당을 위해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새 구심점을 모색하거나, 현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참여하는 ‘더좋은 나라’ 포럼과의 연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옛 상도동계(김영삼 전 대통령 측)와 동교동계(김대중 전 대통령 측)를 채널로 여야 낙천 인사들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낙천 의원들이 집단탈당의 명분을 찾고 세력 규합에 힘쓰는 상황이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탈당 러시는 재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탈당 후 단순한 무소속 연대 수준을 넘어 제3의 ‘非박근혜 보수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총선과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현재 공천 탈락이 확정된 친이계 의원은 서울의 장광근·전여옥·진수희·강승규·권택기·유정현·윤석용·진성호, 인천의 이윤성·조진형, 경기의 백성운·이화수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윤성 의원과 강원의 허 천 의원은 이미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서울 영등포갑의 전여옥 의원은 탈당과 함께 보수성향 중도신당 ‘국민생각’에 입당했다.

서울의 한 친이계 의원은 “탈당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집단 탈당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 탈당 규모는 10~15명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금주내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낙천한 친이계 의원들은 집단 탈당에 앞서 ‘25% 컷오프’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공천위 재심 등을 요구하며 막판 구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공천위)는 12일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 을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3차 전략지역 12곳을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광주일보 조경완 편집국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통령 “새누리당 탈당 없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서 첫 언급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대세론과 한계론’에 대한 질문에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이 다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대조적으로 ‘안철수라는 신성이 등장해 대선 예측이 어렵다’는 질문에는 “야권통합이다, 반MB 정서다 하는 게 있지만 모두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국민의 의식은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변화를 했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등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대해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은 밝혀질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시위에 나오던 정치인들 중에 나하고 미국에서 스테이크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다. 또 그 자제분들도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중(韓中) 간 외교 현안이 된 이어도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선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탈당해야만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론’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당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의 박근혜 지지 발언은 총선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은 민중반란’ 물의 이영조 공천 철회하라

5월 단체 촉구

제주 4·3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폭동, 민중반란이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은 이영조씨가 새누리당의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된 데 대해 일부 5월 단체가 공천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는(이하 공추위)와 일부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위) 위원장의 공천 철회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공추위 등은 “이영조씨는 2010년 11월 5일 미국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으로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민중반란’(a popular revolt)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역사를 왜곡하고 헐뜯는 사람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엄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반역사적인 처사이자 새누리당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이번 공천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개 사과는 물론 이영조씨 역시 민주 영령, 민주유공자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준 “박근혜측이 입국 요청”

나꼼수 육성 공개… 검 “명백한 허위사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준씨가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에게 처음에 입국을 요청한 것은 박근혜 후보 측이었다고 주장한 육성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11일 공개했다.

나꼼수는 이날 새로 올린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김씨의 육성과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원일 전 의원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나꼼수가 공개한 녹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기획입국에서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한테 와서 협상하자고 했다. 빨리 오라는 거였다”며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알고도 관심이 없어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근혜 당시 후보 측 인사로 이혜훈 의원을 거론했다. 나꼼수는 김씨의 육성 녹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김경준씨를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서도 만나본 적이 없고 얘기해본 적도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유 전 의원은 나꼼수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씨의 입국을 요청한 혐의를 민주당에 덮어씌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2일 ‘나꼼수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이란 자료와 함께 2008년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을 공개하고 “나꼼수 주장은 검찰 발표 내용과 당시 언론 보도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모든 후보 측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씨의 입국을 전후해 그 가족, 변호인 등과 접촉하고 자료를 받아가서 폭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김씨의 BBK 관련 주장이 허위인 것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김씨도 이들에게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5일 방한 오바마, DMZ 방문 검토

서울핵안보정상회의(26~27일)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5일 서울을 찾는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한국을 떠나기 전 DMZ를 방문하고 DMZ 내 미군 부대를 찾아 미군을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방문은 11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남북 대치의 현장인 DMZ를 방문하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자신의 구상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미간 2·29 합의로 북핵 6자회담이 재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DMZ를 방문한 적이 없다. 다만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지 않고 한국 내 다른 미군부대 등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목포용해동[독서실]	목포상동[유흥주점]	수기동 [12층관광호텔]	동명동[고시원]	신안동[근린시설]	순천상사[유스호스텔]	풍암동[다가구]
대872m2,건929m2	대980m2,건1057m2	대923m2,건7588m2	대1060m2,건2555m2	대445m2,건1088m2	대11559m2,3498m2	대210m2,건414m2
감정가 11억9천	감정가 19억9천	감정가 74억8천	감정가 22억5천	감정가 10억3천	감정가 28억3천	감정가 4억
최저가 4억3천	최저가 11억1천	최저가 18억7천	최저가 14억4천	최저가 4억6천	최저가 12억7천	최저가 2억8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강원정선[관광호텔] ☜	☞ 대전[웨딩홀] ☜	☞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	☞ 해남 땅끝콘도☜
▷대지 993평 ▷건물 4989평	▷대지 958평 ▷건물 5346평	▷대지 1520평 ▷건물944평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격 85억	▷감정가격 222억9천	▷감정가 89억7천	▷감정가 83억
▷매매가격 30억(협의후결정)	▷매매가격 130억(협의후결정)	▷매매가 40억 (협의후결정)	▷매매가 29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미스포렉스] ☜	☞ 곡성석곡 공장 ☜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 순천 조례동(주차빌딩) ☜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대지 646평 ▷건물 1708평
▷감정가 515억7천	▷감정가 44억3천	▷감정가 135억	▷감정가 43억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생활주택부지매매

▶운천저수지건너편명지아파트옆737평

▶도시형생활주택(29평형아파트)39세대건축허가포함

▶매매가14억5천만원(조정가)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란팀장 010-9900-3002 근린주택 박미란팀장 010-9900-3002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광주대앞(지하)호프,분식60평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3천만원 (H.010-6654-6888)

(주)호남랜드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옥상)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 적 지붕 및 옥상면적5,000㎡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 대 료 별도지급

사 업 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무안읍 휴게소

무안읍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1,130㎡(342평).식당.매점. 현재성업중.매매가 9억원.

Tel : 대표.062-233-2222 직통062-373-3939. HP : 010-3616-8698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봉선동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20억 월임대료1,200만원

■봉선동 1층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첨단 1층복합상가 120평 평당790만원(9억5천만) 임대보증금 8,000만원 월임대료 500만원

■진월동 5층학원건물 (건물평수350평) (매가5억8천) 임대보증금9천만원/월임대료300만원

토 지(매매)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식당영업중)

■(상무지구)833㎡(252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사거리코너)

■(상무지구)1,980㎡(600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동림지구)준주거지 운암~하남간대로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원(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

행복한 공인중개사 (새만금,변산반도 펜션 전문)

* 격포 원룸, 펜션, 다세대주택 부지
2종주거지역, 답 2334㎡ 매12억
현도로접, 계획도로 개통시 지가 상승폭 큼.투자 유망 현재 원룸 공급 부족 여름 한철만 영업해도 년수익 보장

* 상록해수욕장 펜션 부지
계획관리지역, 답 1554㎡ 매10억
상록해수욕장 입구 2차선에 접한 토지로서 향후 지가 상승 바다 조망권 양호

* 격포 궁항 이순신세트장 펜션 부지
계획관리지역, 전 1654㎡ 매7억
요트경기장에 위치한 토지 펜션 운영시 고소득 보장, 바다 조망권 최상

* 상록해수욕장 펜션건물
대 942㎡, 건 264㎡ 매9억
신축 건물, 객실 7개로 월매출 약1500만 성업중

* 격포 체석강 호텔 및 리조트 부지
자연환경보존지역, 전 2995㎡ 매50억
5층건물, 인허가 완료 변산반도 최고의 상업지 바다조망권 최고! 향후 토지지가 상승 기대 및 운영시 고소득 보장

* 변산해수욕장 리조트 부지
계획관리지역, 대 6798㎡ 매 50억
새만금에 근접한 토지 지가 상승 물론 향후 사업시 고소득 보장

저희는 변산반도 펜션 개발 전문 업소로서 펜션 운영시 투자 대비 년소득 25%이상이 보장된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원룸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펜션 사업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062-952-5960, 010-8004-5900